

[지문 핵심 정리]

이 지문은 채권, 채무, 급부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계약과 예약의 법적 의미를 설명한다. 채권은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, 채무는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이며, 급부는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이다.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이다. 이와 달리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, 장래에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이다.

예약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. 하나는 상대방에게 본계약 체결에 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예약이고, 다른 하나는 예약상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예약이다. 지문 후반부에서는 예약 또는 본계약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를 설명한다.

[핵심 개념 정리]

- 채권 :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.
- 채무 :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이다.
- 급부 :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이다. 재화나 서비스 제공일 수도 있고, 그 밖의 내용일 수도 있다.
- 계약 :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이다.
- 예약 : 장래에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이다.
- 본계약 : 예약을 통해 장래에 성립시키려는 계약이다.
- 채무불이행 책임 :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이다.
- 불법행위 책임 :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발생하는 책임이다.

[예약의 두 유형]**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**

예약상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본계약 체결에 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이다. 이 경우 본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.

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

예약상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예약이다. 이 경우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.

26번

문제 유형: 내용 일치

정답 해설

정답은 ⑤이다. 지문에서는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경우, 그 타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.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국한된다는 ⑤는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.

선지 해설

- ①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에 따라 채권 발생 등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적절하다.
- ② 지문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뿐 아니라,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

권리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③ 예약상 권리자는 예약의 유형에 따라 본계약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④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하므로 적절하다.

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7번

문제 유형: 개념 적용

정답 해설

정답은 ③이다.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일상적으로는 예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지문에서 말하는 법적 의미의 예약은 아니다. 이 경우에는 이미 기차 탑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, 실제 서비스 이용 시점만 미래로 정해져 있다.

선지 해설

① 기차 탑승은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대상이 되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기차를 타지 않는 것은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확보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.

③ 승차권 구입으로 계약은 성립하고, 실제 탑승이라는 권리 행사는 미래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적절하다.

④ 승차권 구입은 법률이 정한 조건 충족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⑤ 이는 장래에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에 가까운 설명이다. 승차권 구입은 지문에서 말하는 법적 의미의 예약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8번

문제 유형: 개념 응용

정답 해설

정답은 ①이다.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예약상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본계약 체결에 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ㄱ에는 '급식 계약 승낙'이 들어간다.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, 예약상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급부는 없다. 따라서 ㄴ에는 '없음'이 들어간다. 본계약이 성립한 뒤 급식 업체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급식 제공의 대가이므로 ㄷ에는 '급식 대금 지급'이 들어간다.

선지 해설

① ㄱ, ㄴ, ㄷ이 각각 '급식 계약 승낙', '없음', '급식 대금 지급'으로 연결되므로 적절하다.

② ㄷ은 급식 제공이 아니라 급식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급식 대금 지급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③ 예약 완결권의 경우 본계약은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, 상대방에게 식사 제공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다.

④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ㄱ을 '없음'으로 볼 수 없다.

⑤ ㄷ은 적절하지만, ㄱ과 ㄴ이 예약 유형에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9번

문제 유형 : 보기 적용

[보기 분석]

갑은 예약상 권리자이다.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을은 예약 상대방이다. 을은 갑과 예약 관계에 있는 계약 당사자이므로, 을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.

병은 갑과 제3자이다.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갑이 예약한 시간에 머리 손질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,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.

정답 해설

정답은 ④이다. 을은 갑과 예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이므로,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. 그러나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다. 병은 고의로 갑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으므로, 병에게 문제 되는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다. 따라서 을과 병이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.

선지 해설

① 을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, 병은 위법한 방해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② 을에게 고의가 있으면 을도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,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. 같은 손해에 대해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③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고,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. 두 책임은 같은 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므로 적절하다.

④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된다.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.

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면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하지만 병은 고의로 권리 실현을 방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적절하다.

30번

문제 유형 : 어휘

정답 해설

정답은 ②이다. 지문에서 ㉠ ‘받기로’는 대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였다. 이는 어떤 대상이 자기 쪽으로 오거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. ②의 “편지를 받았다”도 편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.

선지 해설

① 지문의 ㉡ ‘가진’은 권리를 보유한다는 뜻이다. ①의 ‘자부심을 가지다’는 마음이나 태도를 품는다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지문의 ‘대금을 받다’와 ②의 ‘편지를 받다’는 모두 어떤 대상을 자기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.

③ 지문의 ㉢ ‘생길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. ③의 ‘상가가 생기다’는 없던 사물이 새로 생긴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.

④ 지문의 ㉣ ‘책임을 묻다’는 책임을 추궁한다는 뜻이다. ④의 ‘방법을 물어보다’는 질문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㉔ 지문의 ㉔ ‘피해를 끼치다’는 손해를 주다는 뜻이다. ㉔의 ‘소름이 끼치다’는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